증권사 '천수답경영' 옛말… IB수수료 '주식중개' 넘었다

수익다각화로 실적 변동성 줄어
순이익 전분기 대비 5.6% 감소
증권회사 순자본비율 25%p ⬆

주요 증권사의 투자은행(IB)부문 수익이 브로커리지(주식중개)부문 수익을 따라잡아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연합뉴스

〈증권회사 주요 항목별 손익〉 (단위: 억원)

구분	19.1-2분기 비교			
	'19.1Q (A)	'19.2Q (B)	증감 (B-A=C)	증감률 (C/A)
수수료수익(A)	22,422	24,775	2,353	10.5%
수탁수수료	8,913	8,947	34	0.4%
IB부문수수료	7,633	8,942	1,309	17.1%
자산관리부문수수료	2,562	2,980	418	16.3%
기타 수수료	3,315	3,906	591	17.8%
자기매매손익(B)	7,288	10,770	3,482	47.8%
주식관련손익	2,608	△256	△2,864	△109.8%
채권관련손익	20,604	23,521	2,917	14.2%
파생관련손익	△15,925	△12,494	3,431	21.5%
기타자산손익(C)	14,791	8,326	△6,465	△43.7%
외환관련손익	1,281	1,761	480	37.5%
대출관련손익	6,487	6,262	△225	△3.5%
펀드관련손익	7,024	303	△6,721	△95.7%
기타손익*(D)	△3,595	△3,430	165	4.6%
판관비차감전 영업이익(A+B+C+D)	40,906	40,441	△465	△1.1%
판매관리비	22,088	22,522	434	2.0%
당기순이익	14,657	13,842	△815	△5.6%

* 기타손익 : 수수료비용, 전체 조달자금 이자비용 등 /금융감독원

증시 거래량만 바라보던 증권사의 '천수답 경영'은 이제 옛말이 됐다. 지난 2분기 사상 처음으로 IB부문 수수료가 수탁수수료를 따라잡는 등 수익다각화로 실적 변동성도 줄어 들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분기 중 56개 증권회사의 순이익은 1조384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6% 감소했다. 전체 순익 규모는 소폭 줄었지만 질은 오히려 개선됐다. 2분기 수수료수익은 2조477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5% 증가했다.

증시 부진에 수탁수수료는 주춤했지만 IB부문 수수료와 자산관리부문 수수료가 늘었다.

이에 따라 수수료수익 중 IB부문 수수료 비중이 36.1%로 처음으로 수탁수수료 비중 36.1%와 같은 수준이 됐다.

자기매매손익은 1조77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7.8% 증가했다.

주가지수 하락에 주식관련손실은 256억원으로 전분기 2608억원 이익에서 손실로 전환했다. 반면 금리 하락세에 채권관련 이익은 2조352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2% 늘었다.

파생관련손실은 1조249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손실규모가 축소됐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매도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평가손실이 줄었다.

기타자산손익은 832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3.7% 감소했다. 펀드(집합투자증권)관련 이익이 30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 2분기(누적) 증권회사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4.96%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낮아졌다. 2분기 말 전체 증권회사의 자산총액은 490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3.9% 증가했다. 매도파생결합증권·RP매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채권 등으로 운용하면서 채권보유액이 늘었다.

부채총액은 432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4.1% 증가했다.

전체 증권회사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551.3%로 전분기 말보다 25.0%포인트 높아졌다. 7개 종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순자본비율은 1238.2%로 전년 대비 122.1%포인트 올라갔다.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717.6%로 전분기 말 대비 11.5%포인트 상승했다. 적극적인 자금조달로 대형사의 레버리지비율이 중·소형사에 비해 높았다.

올해 2분기 5개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8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3% 증가했다.

ROE는 2.1%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2분기 중 증권사의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IB부문 및 자산관리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수익은 다각화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미·중 무역분쟁 등을 포함한 대외 불확실성이 향후 주식, 채권, 파생시장 등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금리, 주식시장 등대내외 잠재리스크 요인이 수익성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덧붙여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채무보증 등 부동산 금융 현황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바이오 대장주 지각변동 헬릭스미스 시총 2위로

임상 3상 결과 공개 후 반등 기대
메지온도 36위서 24위로 올라

최근 바이오주 폭락에도 불구하고 임상3상 결과를 목전에 둔 헬릭스미스와 메지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도 '껑충' 뛰어오르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코스닥 시총 순위가 2개월 전인 7월 9일 4위에서 9월 10일 기준으로 CJ ENM를 누르고 2위에 올라섰으며, 메지온도 36위에서 24위로 순위가 12계단이나 올랐다.

헬릭스미스는 오는 23일에서 27일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VM202)'에 대한 미국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엔젠시스는 신경 손상시 통증을 유도하는 인자들의 발현을 조절해 통증을 감소시키고 말초신경세포 재생을 촉진시키는 치료제다.

이어 메지온은 오는 11월 16일 열리는 미국 심장학회 학술대회에서 단심실 선천성 심장질환 치료 후보물질 '유데나필'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데나필은 선천적 심장 기형 어린이들이 폰탄수술을 받은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막는 치료제다.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신라젠의 임상 3상 실패 등으로 바이오주 시총 순위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 기업들의 시총 순위가 오른 것은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가 임상 3상 발표를 앞둔 이들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헬릭스미스와 메지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긍정적인 임상3상 결과가 바이오주 반등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헬릭스미스의 결과가 공개되면 임상 3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임상 3상 결과 공개 이후 제약·바이오주의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헬릭스미스는 그동안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성공 소식을 내놓을 경우,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임상 3상이 성공한다면 헬릭스미스가 신약개발 대장주로 등극하면서 침체된 투자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신약개발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유전자치료제는 세계적으로도 가치가 큰 만큼 우리나라 신약개발 능력을 격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했다.

신효섭 부국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FDA와 논의 후 추적관찰 기간 3개월 연장을 결정하고 7월 완료했는데 이는 품목 허가를 수월하게 받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며 "이 회사의 약물이 신경세포 재생을 촉진시키고 통증 유발인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규명한 만큼 이번 임상에서 평가지표를 충족하면 6조원 규모의 당뇨병성 신경병증(DPN) 시장을 대체할 차세대 치료 약물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채윤정 기자 echo@

부동산신탁사 '차입형토지신탁' 1.2% 감소

순이익 2633억 전년比 7.7% 감소
평균 당기순이익 239억·11社 흑자

부동산신탁사의 주요 수입원인 차입형토지신탁의 수탁고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11개 부동산신탁회사의 순이익은 26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했다. 평균 당기순이익은 239억원이며, 11개사 모두 흑자를 냈다.

영업수익은 63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신탁보수는 3939억원으로 영업수익의 62.1%를 차지했다. 그 중 차입형 및 관리형토지신탁의 보수가 3182억원으로 전체 신탁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8%다.

차입형토지신탁 수탁고는 8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2% 감소했으며, 신탁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한 1926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형토지신탁 수탁고는 59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0% 증가했다. 신탁보수는 1256억원으로 책임준공형 보수가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9.7% 증가했다.

영업비용은 28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 늘었다. 임직원 수가 늘면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증가폭이 컸고, 신탁계정대여금의 자산건전성이 하락하면서 대손상각비도 급증했다.

총자산은 5조3216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3.0% 증가했다. 총부채는 2조4712억원으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전년 말 대비 21.7%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전년 말 대비 6.3% 증가한 2조8504억원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평균 735%로 전년 말 대비 121%포인트 하락했다. 11개사 모두 필요유지 자기자본 요건(70억원)을 충족하며, 적기시정조치 기준(NCR 150%)을 크게 웃돌다. /안상미 기자

금투협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주말)' 집합교육과정을 오는 10월 25일부터 개설한다.

상시 신청과 교육이 가능하며, 두 과정 모두 수료해야 전문인력 등록이 가능하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주말)' 과정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법적환경, 조세 등에 대한 최신정보와 에쿼티헷지(Equity Hedge), 이벤트-드리븐(Event-Driven), 릴러티브 밸류(Relative Value) 등 다양한 운용전략 및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이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10월 4일까지며, 교육기간은 10월 25, 26일 2일간 12시간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증권 다이제스트

이베스트투자증권

16일부터 주식모의투자대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총 부울경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식 모의투자대회를 개최한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증권투자 동아리 연합인 '부증련'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주식 모의투자대회는 경성대, 부산대, 동아대 등 해당지역 10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1위 상금 100만원 등 상위 50명에게 총 365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손엄지 기자

키움증권

ETF도 미국직구시대

키움증권은 오는 19일 '이젠 ETF도 미국 직구 시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01호에서 17시 30분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 강의는 뱅카드사의 오기석 상무와 키움증권 글로벌영업팀의 김주비 대리가 강의를 맡는다. 세미나 전반부에는 미국에 상장된 ETF 구성에 대한 소개와 영웅문 Global을 활용한 미국 ETF 직구법을 안내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